교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慶南中高同窓會報

발행·편집인 : 박 동 열
발 행 처 :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O/T 411호
Tel:(051)245-7551~3, FAX:245-7550
홈페이지 : www.kyungnam.or.kr
인 쇄 처 : (주)동방인쇄 (051)636-9477

재경동창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503호
Tel:(02)783-0071~2, FAX:(02)783-0073

'용마골프' 11월17일 티업

홀인원 '부부 동남아 여행 지원' 특전

본부주최, 부산C.C.서 60개조 240명 출전 예정
여성부 신설… 부인 골퍼끼리 기량 겨뤄

대망의 제6회 동창회장배쟁탈 용마골프대회가 오는 11월17일 부산C.C.에서 티업, 240명(60개조)의용마골퍼들이 백구의 향연을 펼친다(사진은 지난해 제5회 대회 라운딩 모습).

특히 올해 대회에서는 여성부를 신설, 동문 부인들끼리 기량을 발휘케 하고 홀인원상 수상자에게는 "부부 동남아 5일간 여행경비(왕복 항공권 포함 200만원 지원)를 제공하는 등 대회 활성화 촉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번 대회는 스트로크 방식의 기별대항전과 뉴페리어 방식의 개인전, 한자리수 동기회 골퍼들의 시니어 개인전, 동문 부인들의 여성 개인전으로 치른다.

대회는 오전 9시20분 시구와 기념촬영에 이어 오전 9시30분 아웃코스와 인코스에서 동시에 30개조(120명)가 출발할 예정이다.

각 조별 간격시간은 6분이며, 오후 첫 조와 마지막 조 시간차이는 2시간 30분 소요로 예정하고 있다.

트로피는 단체전·개인전·시니어부·여성부 우승·메달리스트·준우승에게 시상하고 또한 부상도 수여된다.

홀인원상 경우 5번홀(아웃)을 택하며 홀인원컵과 부상을 시상하고 부부 동남아 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특전이 베풀어진다. 그리고 참가 동문과 가족에게 참가상을, 입상자 전원에게 부상을 수여한다.

이날 오후 5시30부터 예정하고 있는 시상식에 이어 20~30여명을 선정하는 행운상 추첨(대상 경우 120만원 상당 혼마 드리버 제공), 단합회가 펼쳐진다.

會告

"12월12일 '용마의 밤' 롯데호텔서 축배를"

국내외 용마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부동창회는 '2003 용마의 밤' 축제를 오는 12월 12일(금) 오후 6시30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호텔롯데부산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부산을 비롯,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울산 창원 마산 진주 등지에서 1천500여명이 참석하는 본부 주최 '용마의 밤'은 용마가족의 화합과 결속을 재확인하고 역량의 결집을 다짐하는 광장입니다.

올해 축제도 TV쇼를 방불케 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동문 노래자랑과 행운상 추첨 등 다채롭게 연출될 전망입니다. 이날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여 우정의 축배를 들며 새해를 향한 도약의 의지를 불태웁시다.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11월19일 정기총회

재경 이사회, 회장임기 '2년·연임제' 채택

차기 회장 천신일(15회) 추천

재경동창회 2003년 정기총회가 오는 11월19일 오후 7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대연회실에서 예년과 달리 동문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회장을 새로 뽑고 '회장임기 2년·연임' 골자의 개정회칙안 등 주요의안을 확정한다.

재경동창회 정기총회는 지난해까지만해도 실내체육관 등에서 가족들을 동반한 가운데 열려 노래자랑 등으로 엮어졌으나 올해부터는 호텔 연회실에서 동문들만 참석한 가운데 개최키로 했다.

재경동창회는 지난 9월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올해 제3차 이사회를 열고 현행 '임기 1년·단임제'인 회장 임기를 '2년·연임제'로 하는 개정 회칙안을 통과시켰다.

신준호 회장(14회·롯데 햄 우유 회장)은 이 같은 주요의안 심의에서 차기 회장으로 천신일 수석부회장(15회·세중 회장)을 추천, 총회에서 승인을 받기로 했다.

박호문 사무국장(15회)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이사회는 이 밖에 조직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했다.

이사회가 회장의 임기를 '2년·연임제'로 바꾼 것은 현행 '1년·단임제'가 조직활성화를 위해 효율성을 제고하지 못한다는 여론을 수렴한 결과이다.

본부회장단 간담회… 4/4분기 행사 추진 확인

본부동창회 박동열 회장(8회·해운대 성심병원장)은 지난 10월 24일 오후 6시30분 부산 동구 범일동 일식전문점 대어에서 회장단간담회를 주재, 4/4분기 주요 행사 및 사업 추진 방향을 밝히고, 회장 임기문제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11월17일 제6회 용마골프대회(부산 C.C.) △11월21일 본부 올해 3차 이사회 개최 예정(코모도호텔) △12월12일 '2003 용마의 밤'(롯데호텔) 개최 등 계획안을 승인했다.

"가을 술맛 달콤"

경열회, 회장초청 단합회

경열회(재경 제10회) 회장 초청 단합회가 지난 10월 8일 오후 6시 서초갈비촌에서 열려 결실의 계절답게 풍성한 마음들을 수확했다.

이승락 회장의 주재로 진행된 모임에서 동문들은 "안주맛이 단백한데다 술맛마저 달착지근해 정담이 풍성해진다"고 입을 모았다.

뒤풀이는 노래경연으로 절정을 이뤘다.

12월4일 정기총회 등대회, 송년잔치도

부산지역 해운·항만·수산업계 동문 모임인 등대회는 오는 12월4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영주동 코모도호텔 회락정에서 제30차 정기총회 겸 송년잔치를 개최한다.

김 조 회장(16회·천우통상 대표이사)이 주재하는 이날 행사는 결산 및 예산안 심의 등 주요안건을 다루고 조직 활성화와 동문·가족 유대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GOLF

동창회장배쟁탈
제6회 용마골프대회

●일 시 / 2003년 11월 17일(월)
오전 9시30분 첫 Tee Off (예정시간)
●장 소 / 부산 C.C.
●대회구분 / 1) 단체전 (스트로크 방식)
2) 개인전 (뉴페리어 방식)
3) 시니어부
4) 여성부
●참가신청 / 본부동창회 사무국 (051-245-7551~3)

주최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시 평

김 경 희
제9회 · 재경동창회 고문 · 용마공영(주) 대표이사

"우리 역사를 바로 압시다"

20여년 전 진순신(陳舜臣 · 1924년생 · 일본 오사카대 인도어학과 졸업)이 쓴 '강은 흐르지 않고'(부제-소설 청일전쟁 · 1983.5.25 초판 발행)를 새삼 되새겨 보게 하는 요즈음의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정치 상황입니다.

일본 고오베(神戶)에서 태어난 중국인 작가가 한반도를 배경으로 쓴 작품이기에 기억이 새롭습니다. 쇠약한 조선왕조를 놓고 조선을 속국으로 여기는 오만한 청국과 일본 간의 각축전을, 작가는 방대하고 진귀한 수많은 자료들인 당시의 신문기사 · 외교문서 · 궁정기록 등 귀중한 역사의 편린들을 채록하여 그려낸 작품입니다.

이 글이 단순한 소설이 아니라는 것을 읽어가면서 쉽게 느끼게 됩니다. 역사는 꾸밈없이 기록되어야만 합니다. 봇물 터지듯이 우리나라 근대사의 막을 연 19세기 말의 가슴 아픈 역사를 애써 외면해 온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니, 청일전쟁에 대하여 제대로 배워보지도 못했고 참고할 역사서조차 못 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은 웬만한 역사를 소설화하여 그들의 역사영웅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가령, 우리는 학교에서 듣지도 배우지도 못한 '이마나 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일본이 삼한시대 남해안 일대를 지배했었다는 허구)'을 출장 온 일본 거래처 직원 입에서 줄줄 쏟아내는 것을 듣고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독서력이 뛰어난 일본인들이 그들의 역사를 소설을 통해 배웠다는 고백에 솔직히 부럽기조차 했습니다.

역사의 무지 내지는 역사의식의 결여가 우리의 심각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합니다.

지난날 해외 유학시험과목은 영어와 국사였었는데 국사가 사라졌고 사법시험에서도 국사가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고등학교의 국사 시간이 새로운 교육과정 개혁에서 현저하게 축소된 것도 문제입니다. 본인이 영국계 Jardine사에 근무할 때 이튼(Eaton) 출신인 직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적어도 역사연대 200개를 암기하지 않고서는 이튼 칼리지를 졸업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에 일본의 첩보조직 '덴유교(天佑俠)'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역사입니다. 일본의 대륙 침략의 사전공작을 위해 조직된 정치공작대입니다. 한일합방과 대륙침략추진자인 우익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이들은 약장사 · 상인 등으로 위장하여 삼천리 방방곡곡을 샅샅이 뒤져 우리나라 조정이 모르고 있는 실상까지 철저히 파악해냈습니다.

민간단체인 것처럼 꾸며졌으나 일본 육사 출신 등이 핵심요원으로 일본 정부의 첨병역할을 했습니다. 동학혁명의 원인 · 목적 · 실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동시에 민씨정권타도계획을 세웠습니다. 동학란을 책동 · 선동하여 청일전쟁에 불을 지른 장본인들입니다.

1894년 (고종 31년-명치 27년) 3월에 전봉준(全琫準)이 영도하는 동학교도들이 조정과 지방 관리의 학정 및 가혹한 농민수탈정책에 반기를 들고 전라도 지방을 근거로 하여 농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동학혁명 혹은 동학란이라 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은 세력이 확대되어 그해 5월 진압차 투입한 정부군을 격파하고 같은 달 31일 전주성마저 점령했습니다.

반일친청(反日親淸)정권 노선을 취하던 민씨정권은 청국에 SOS를 타전, 1894년 5월5일 2100명의 청군을 아산만에 상륙시켰습니다. 민씨정권의 친청노선에 불만을 품고 있었던 일본, 그리고 청과의 전쟁을 준비하던 일본의 조슈(長州)군벌은 청과의 전쟁 명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도 청군이 아산에 상륙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같은 해 5월9일 오지마혼병여단(大島混兵旅團)을 인천에 상륙시켰습니다. 목적은 친청민씨정권 타도였습니다. 당황한 조선 정부는 청군, 일본군의 출병사실을 알고 양군에 출병의 구실을 주지 않기 위해 동학농민군과 전주화약(全州和約)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청-일 양군의 전투는 그 후 50여 일이나 한반도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은 7월23일 경복궁에 침입하여 민씨정권을 무너뜨리고 대원군을 앞세워 친일정권을 출범시켰습니다. 곧이어 8월1일 청일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동학농민군은 반일 투쟁을 위해 다시 봉기했으나 우세한 일본군 세력 앞에 힘없이 괴멸되었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이는 구실을 만들어준 동학란 사건은 안타깝게도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일본군은 군수물자만 일본에서 가지고 왔을 뿐 8월27일 체결된 대조선대일본양국맹약(對朝鮮對日本兩國盟約)에 의해 식량 · 부식물 · 군수물자 수송의 노동력을 현지에서 조달했으므로 전쟁터가 된 조선 민중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고 조선의 자주권은 유린되었습니다.

나치 속죄를 위한 독일이 쏟는 정성은 놀랍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유대인을 위한 온갖 편의를 도모코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몰염치한 이웃 일본의 뉘우칠 줄 모르는 대조적인 태도에 실망입니다.

지난 10월28일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 도쿄 도지사(都知事)는 "1910년 한일합방은 한국민이 원해서 이루어졌다"는 터무니없는 궤변(demagogue)을 늘어놓았습니다. 2001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파문을 주도한 니시오 간지(西尾幹二) 전 대표는 11월1일자 마이니치신문 기고문에서 '한국인은 일본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것보다 병합을 해서 1등 국민으로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100만 명이 넘는 일진회(一進會)가 병합을 요청하는 정치적 운동을 전개했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진회는 조선말기 광무8년(1904)에 한일합방을 위하여 활동한 매국적 정치단체였습니다. 매국노 송병준(宋秉畯) · 이용구(李容九)등이 조직한 것으로, 1905년 제2차 한일합병조약을 맺은 뒤 1909년 이토히로부미(伊藤博文)에게 한일합방(경술국치-庚戌國恥)을 제안하여 고종에게 억지로 조약을 맺게 하고 1910년 해산한 조직입니다.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것이라는 망발을 한 아소 다로를 총무처 장관에 임명한 고이즈미는 현재 일본의 수상입니다.

우리 모두 일본의 양식은 어디로 갔느냐"고 따지기 전에 우리 역사 공부부터 철저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해 봅시다.

재경동창회 첫 기별대항 골프대회 성황

제14 · 29회동기회 감격의 우승

재경동창회가 조직 활성화를 꾀해 새로운 이벤트로 도입한 기별대항 골프대회가 제3~42회 동기회 320명의 매니아들이 참가해 큰 수확을 거뒀다.

지난 10월13일 대광CC에서 티업한 제1회 용마기별대항 골프대회(주최 재경동창회 · 주관 재경용마골프회) 단체전에서 제14회(A조-제7~20회 구성)와 제29회(B조-제21~42회 구성)가 각각 우승의 영광을 안았다.

개인전 팀별 우승은 장한신(6회 · 골드시니어팀) · 윤승홍(14회 · A조 선수팀) · 문경순(18회 · A조 친선팀) · 김화곤(34회 · B조 선수팀) · 주보훈 동문(36회 · B조 친선팀)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오후 시상식에 이어 열린 단합회에서 재경용마골프회 창립총회를 개최, 이번 대회의 집행위원회를 이끈 윤승홍 위원장(14회 · 지에프맨파워 회장 · 원내 사진)을 초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대회를 주재한 신준호 재경회장(14회 · 롯데 햄 우유 회장)은 단합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첫 기별대항 골프대회가 이처럼 수확이 풍성하도록 적극 참여해 주신 선 · 후배 동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며 대회가 해마다 번창하여 동창회 활성화의 밀알로 뿌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상식에 이어 열린 단합회에서 용마골퍼들이 정담을 나누고 있다.

■단체전

▲A조=▷우승 제14회(윤승홍 서정환 김도선 신기석-240타) ▷준우승 18회(김부경 변박장 이태우 홍순배-243타) ▷3위 제17회(임우택 김연일 김홍규 이병현-244타)

▲B조=▷우승 제29회(박성재 김광근 김대욱 김태희-237타) ▷준우승 제34회(김화곤 윤성부 최복용 이철수-238타) ▷3위 제28회(전상원 황인엽 김주성 김인회-243타)

■개인전

▲골드시니어팀=▷우승 장한신(6회 · 75타) ▷준우승 이경옥(5회 · 86타) ▷3위 남홍우(7회 · 86타)

▲A조 선수팀=▷우승 윤승홍(14회 · 74타) ▷준우승 임우택(17회 · 74타) ▷3위 남기주(15회 · 77타) ▷롱기스트 박문환(16회 · 233m) ▷니어리스트 이종국(20회 · 7.4m)

▲A조 친선팀=▷우승 문경순(18회 · 79타) ▷준우승 서부원(18회 · 81타) ▷3위 변재신(15회 · 82타) ▷롱기스트 김만수(18회 · 235m) ▷니어리스트 최홍표(19회 · 2.93m)

▲B조 선수팀=▷우승 김화곤(34회 · 72타) ▷준우승 김대욱(29회 · 74타) ▷3위 박윤섭(35회 · 74타) ▷롱기스트 이철수(34회 · 281m) ▷니어리스트 박해성(24회 · 2.38m)

▲B조 선수팀=▷우승 주보훈(36회 · 77타) ▷준우승 장광훈(38회 · 78타) ▷3위 정경배(39회 · 78타) ▷롱기스트 오세용(29회 · 280m) ▷니어리스트 이종구(24회 · 1.40m).

오봉석(15회) 부산다운건축상 금상 수상

오봉석 동문(15회 · 동일건축 대표이사 · 사진)은 지난 10월31일 부산다운건축상 우수디자인 부문(주거용) 금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작은 '아시아드선수촌아파트'.

부산다운건축상은 부산을 동북아 물류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만들면서, 다양한 볼거리와 관광시설을 개발해 사계절 국제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도시정서를 잘 표현하고 자연 경관과 조화되는 우수한 건축물에 주어지는 상이다.

이 상은 우수디자인 · 야간경관조명 · 우수조경 · 공공기여건축 등 4개 부문으로 나눠져 있다.

김대헌(18회) 부산시의사회 회장 선임

김대헌 동문(18회 · 신한방사선과의원장 · 사진)은 지난 10월29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일동 크라운호텔 신관 3층 목련홀에서 열린 부산시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제3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30대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김 동문은 최성호 제31대 회장(17회)이 일신상 이유로 사퇴함에 따라 이날 보선에서 정헌화 후보와(유일병원장)와 경선 끝에 당선됐다.

하영수(15회) 동산교회 목사 위임

하영수 동문(15회 · 사진)은 지난 9월29일 오후 5시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동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임직식을 갖고 목사로 새 출발했다.

하 동문은 지난해 2월 브니엘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1년간 강도사 생활을 거쳤다.

이용흠(19회) 제2회 부산예술상 받아

이용흠 동문(19회 · 일신건축설계사 대표이사 · 사진)은 최근 제2회 부산예술상(건축부문)을 수상했다.

매년 예술적 업적이 뛰어난 건축 · 문학 · 음악인에게 수여하는 이 상은 지난해 제정됐다.

이 동문은 제1회 부산시건축상 금상(부산시립미술관) · 미국AIA협회 선정 최우수 건축상(부산전시컨벤션센터) 등 수많은 건축상을 수상했고, 사천시청사 설계 및 부산 동구청 설계 공모에 당선됐다.

특히 건축전문 잡지 월간 〈이상건축〉을 지방에서 처음으로 창간하는 등 공적이 평가돼 이번에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제27회 우승… 용마기 입맞춤

기별야구부산대회 준우승 제44회 차지
MVP 조영일(27회)·인기가족상 임정훈(44회) 가족

제27회동기회가 숙원의 황금 용마기를 품에 안았다.

지난 11월1일 오후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제35회 기별대항 야구대회(2003부산시리즈) 결승전에서 거함 제27회는 다크호스 제44회를 초반부터 함포사격, 26-14로 침몰시키고 패권을 차지, 감격을 누렸다.

지난 10월5일 개막한 올해 기별야구대회는 장장 4주간의 레이스를 달려 이날 격정의 결승전을 펼쳐 예측불허의 명승부 드라마를 연출했다.

제27회(회장 조용수·감독 배기용)는 우승기·우승컵·상금 30만원을, 제44회(회장 임정훈·감독 박중현)는 준우승컵(12월12일 용마의 밤 축제에서 수여)·상금 20만원을 각각 받았다.(우승및 준우승컵 등은 12월12일 용마의 밤에 수여).

최우수선수상(MVP)은 조영일 동문(27회)이 수상했다.

핸디 8점의 프리미엄을 안고 출장한 제27회는 1회초 무사만루에서 4번 이성득의 적시타와 전창민·허종환의 연속 안타로 대거 8점을 선취, 기선을 제압했다.

이어 이재용의 적시 3루타가 작렬, 9점을 추가함으로써 승부를 결정지었다.

제44회는 1회말 추격전에서 마운드의 난조로 곤욕을 치른 끝에 전열을 정비, 반격의 포문을 열어 4번 신진수의 홈런 2방을 보태 4점을 뽑았다.

이어 2회말 3점, 5~6회 각각 2·1·4점을 추가했으나 시종 상대방 투수 조영일의 구위에 눌러 우승에의 꿈이 깨어졌다.

▲단체상 ▷우승=제27회 ▷준우승=제44회

▲개인상 ▷MVP=조영일(27회) ▷최우수투수상=이재용(27회) ▷감독상=배기용(27회) ▷수훈상=석상봉(44회) ▷타격상 1위=김종인(33회·6할6푼7리-15타수 10안타) ▷타격상 2위=손영대(33회·6할6푼7리-12타수 8안타) ▷타격상 3위=안병규(44회·5하8푼8리-17타수 10안타) ▷감투상=박찬석(27회)·김영주(44회) ▷미기상=하종환(27회)·이태식(44회) ▷인기상=전창민(27회)·최주섭(44회) ▷인기가족상=임정훈 가족(44회) ▷공로상=이길상(6회·경야회 고문) ▷홈런상=신진수(44회) 등.

박동열 본부회장(왼쪽)으로부터 받은 우승기를 제27회 조용수 회장(가운데)과 박찬석 동문이 흔들고 있다.

회	1	2	3	4	5	6	7	8	9	계
제27회	16	9	0	0	1	0	0			26
제44회	4	3	0	0	2	1	4			14

▶제27회 △투수=조영일 △포수=황귀양 △3루타=이재용 △2루타=이성득·전창민·허종환

▶제44회 △투수=임정훈·안병규·석상봉 △포수=전광렬·안병규 △홈런=신진수(1회 3점·2회 2점) △2루타=하태욱·안병규·전광렬·탁정환.

제27회	36	18	13	18	1	·	11	7	8	8
	타수	득점	안타	타점	도루	희타	사구	삼진	진루	핸디
제44회		14	14	14	1	·	1	2	5	·

한편 장타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에게는 특별상이, 연합팀 선수 및 응원단에게는 점심식사(도시락)가 제공됐다.

▲ 연합팀 경기 개인상 ▷우수선수상=강귀동 ▷우수선수상=이효근(14회) ▷수훈상=제병민(13회) ▷타격상=허 섭(10회) ▷감투상=김영식(14회) ▷인기상=강성도(8회) ▷홈런상=허 섭(10회)·최충락(14회).

연합 A-B팀 전황

파죽지세 B팀 투타 묘기 6-0으로 A팀 쉽게 제압

지난 10월 5일 오전 경남고 야구장에서 열린 동창회장기 제35회 기별야구대회 입장식에 이어 속행된 장타대회 후 치러진 연합 A-B팀 한판승부(번외경기 3회전)는 0-6으로 B팀이 낙승했다.

이날 연합A팀(제1~17회 홀수팀)은 최박지·제병민 등 제13회 동문들로 구성됐고, B팀(제4~18회 짝수팀)은 강성도(8회)·허 섭(10회) 등 노병(?)들이 포진했다. 심판은 경야회(회장 박문규·16회) 회원들이 맡았는데, 주심 조홍기(22회)·1루심 박상국(33회)·2루심 이웅규(22회)·3루심 양순남 동문(37회).

제15회 속리산에서 京釜합동산행대회

제15회동기회 경부합동산행대회가 지난 9월20~21일 속리산에서 펼쳐졌다. 재경 보름산우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부산 37명·서울 22명 등 모두 57명이 참석했다.

20일 문장대모텔에서 합류한 부산·서울 동문들은 전야제를 통해 '영원한 우정'을 확인하고 화합주(和合酒)를 마시고 또 마신 후 이곳에서 하룻밤을 지샜다.

21일 오전 8시 숙박지를 나선 일행은 문장대~신선대(중식)~경업대~법주사 코스를 극복했고 신토불이집에서 이별을 아쉬워하는 단합회를 벌였다.

초대석

권 명 미
경남고등학교 교장

모교와 동창회의 명예 선양을 위해 자긍심을 불태우고 계시는 용마기족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지난 8월 하순 '경남고 교장'으로 전보발령을 받은 저는, 처음에는 몹시 당황하였습니다. 부산남고 교장 3년 재임기간(교감 1년까지 합치면 4년) 매일 하루 연산동에서 왕복 43km를 주행했는데, 경남고는 편도 37km를 달린다고 생각하니 말입니다. 가까이 있는 학교도 있는데 왜 하필 이 학교로 보냈을까, 교육감이 4명이나 배출된 명문 경남고가 아닌가, 나는 과연 자격이 있는 교장인가, 더욱이 나는 경남고 출신도 아닌 경북사대부고 출신이 아닌가…' 등 갖가지 생각들이 제 마음을 옭아 매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경남고 동창회 측에서도 저의 부임에 동의하였고, 시교육청에서도 제가 가기를 원했으니 발령이 난 게 아닌가 생각하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9월1일 부임하자마자 학생들의 학력과 학사, 교육환경 등 현황을 보고받고 학력 증진·시설 개선 등에 총체적인 지휘력을 발휘해야겠다는 각오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본부동창회 임원들과의 상견례, 봉황기 우승 자축연, 기별야구대회 등으로 눈코 뜰 사이가 없었습니다. 특히 야구부 현안문제에 대한 학부모들과의 공감대 형성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먼저 저는, 학교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 할일이 많음을 인식, 앞으로 이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시설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본관과 신관 옥상은 누수현상으로 교실과 교무실에까지 비가 새는 실정입니다. 다행히 원형관과 과학관, 국산관 화장실의 전면적인 보수 문제 등은 교육감께서 지원해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수능시험에 대비하여 교육청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방송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01~2002학년도 수능시험 때 두 차례나 '듣기' 방송 중 방송이 중단되어 치른 낭패와 곤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체육관 중수를 비롯한 야구부 실내 연습장 및 합숙소 건립 등에 관하여 동문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로 교육부에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2의 모교' 도약에 최선을

다음으로, 학교 건물 재배치에 관한 장기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의 안목으로 봐도 경남고의 건물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로는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설계하고 건축했으리라 믿지만 좀더 미래지향적이었다면 어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1~2년 뒤에 건축하는 게 아니라 '2년 내 1차 공사·5년 내 2차 공사·10년 내 완공한다'는 식으로 건축을 했다면 현재처럼 교사의 답답한 배치는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경남고의 대지는 약 2만1,000평으로, 이는 상당히 큰 규모인데 답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과학관 본관 신관으로 이어지는 동선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과학관 본관 신관은 정상적인 건물의 형태가 아니라고 봅니다. 학교의 주된 건물의 기본은 중앙 현관이 있고 좌우 끝쪽에 계단과 화장실이 있어서 좌우가 대칭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건물의 형태를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원형관은 특별교실 및 역사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건물로 판단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재의 운동장은 야구장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어 체육관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운동장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동창회 측에서 학교 이전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위치를 고수한다면 저는 재임 중 경남고 재건축계획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구축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의 성실한 운영으로 새로운 경남고교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제2의 모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남고는 건물 규모가 큰 학교입니다. 건물 규모가 크고, 학교 부지가 넓다고 해서 교육청의 지원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동창회와 동문 여러분께서 야구를 사랑하는 만큼 학교의 재정적인 지원에 동참해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은 누구를 탓하려는 것이 아님을 거듭 헤아려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문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3회동기회 임원명단

고 문
손재우 이범경 김상한 이철세
변종길 허갑도 송문일 최번영
한병조 오원수 홍창수 장 청
이성빈 김향운 구창덕

회 장 박영충

수석부회장 김장웅

감 사 신민철 서종학

총 무 문형재 유수종

부회장 강귀동 강수민 강정문
강종원 고송구 고경철 공한국
권영채 김간웅 김무조 김수웅
김수일 김정성 김정태 김학대
김한규 김홍철 김영길(송정)
김치득 남영기 박계부 박진태
박종탁 박주열 박홍일 박홍표
박안효 박건일 배대결 배영봉
백명조 송창식 신성우 안수웅
안종일 안준수 오한수 오상찬
옥종환 배충행 윤진규 이용웅
이일회 김 일 이종달 정삼영
정연호 제병민 조달곤 차영일
최영환 황선웅

이 사 강호정 강희관 고시준
권병록 권순기 권오덕 김기태
김동호 김문웅 김민철 김백조
김병덕 김봉진 김부윤 김부조
김말남 김상치 김석태 김성태
김소웅 김승언 김신부 김신수
김양기 김양일 김영길 김영문
김영복 김영수 김영식 김영재
김영희 김용석 김원후 김일웅
김정일 김창구 김 청 김춘길
김태웅 김태형 김한동 남상신
문동오 문기찬 문대조 문성일
박경오 박국언 박규환 박기섭
박길만 박도웅 박두만 박민보
박봉도 박안남 박양웅 박영식
박원길 박일성 박재공 박찬용
박호지 배상홍 배석근 배판규
백원호 변상환 서상오 서재용
서정수 서중하 성정호 손봉율
송영석 신창도 심하근 안가연
안성문 오광희 오무웅 오영조
유영재 윤병국 윤청의 윤기갑
이경준 이규채 이길형 이명기
이민부 이상권 이소현 이영현
이영호 이용식 이원찬 이정욱
이정웅 이종두 이창구 이천석
이치영 이종영 이태랑 이영호
임용수 장미추 장병길 장 영
장영덕 장위추 장영길 전명찬
전병인 정덕치 정옥용 정영화
정준국 정진화 정창철 정영일
정은섭 조원석 최덕일 최박지
최양율 최태환 추성윤 한병우
허남식 허신량 허창휘

서울지역 회장 김종의
울산지역 회장 이태남
대구·경북 회장 조성호
마창지역 회장 노일용

2003년도 동기생명부를 발행하고자 하오니 변경사항(주소 전화번호 핸드폰)이 있으시면 통보 바람

동기회사무실 : 051)244-0013

사슴목장서 20년 만에 야유회

제13회동기회 서울 등지 동문 51명 참석

제13회동기회 가을야유회가 지난 10월26일 경남 양산시 근교 배내골 사슴목장(김수일 동문 자영)에서 열려 새로운 추억거리들을 만들었다(사진).

박영충 회장의 특별배려로 마련된 이날 나들이에는 서울의 김종각 전 회장과 국회의원인 정문화 동문을 비롯한 51명이 참석했는데, 최영제 동문(대우버스 대표이사)이 차량을 제공해 오가는 길이 편안하도록 했다. 다만 나들이차량들이 붐벼 부산~배내골 3시간, 배내골~부산 5시간 소요가 짜증(?)을 내게 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983년 경주(숙박지 코오롱호텔)에서의 가을 야유회 이후 20년 만에 열린 탓인지 즐거움을 감추지 못했다.

칠순 앞둔 慶九會 산사나이들 향적봉 등정 '노병건재' 과시

제100차 산행돌파기념 행사

칠순을 눈앞에 둔 용마산꾼들이 해발 1,600m가 넘는 덕유산에 등정, 노익장을 뽐내며 '노병건재'를 재확인했다.

경구산악회(제9회동기회)는 제100차 산행 돌파 기념행사를 지난 9월23~24일 1박2일 일정으로 덕유산 정상 향적봉(1,614m)에서 치렀다(사진).

신석현 산악회장 등 15명의 산꾼들은 24일 오전 무주리조트의 곤도라를 타고 설천봉까지 올라간 후 향적봉을 밟고 "야호!"를 한껏 외쳤다.

장장 10km의 하산길에 신라 고찰 백련사를 들렀고 아름다운 숲과 기암괴석으로 절경을 이룬 계곡과 청아한 개울물 등으로 조화를 이룬 무주구천동 풍광에 혼을 뺏겼다. 한편 일행은 23일 오후 문정덕 임종조 신도수 동문이 기사(?)가 된 3대의 승용차로 무주리조트에 도착, 제100차 산행 기념 전야제를 연출했다.

잔치상은 생삽결살구이 안주와, 복분자술(유금열)·더덕주(조규양)·매실주(차진한)·양주(박종근 김수안 윤일명) 등으로 차려져 자정 넘게 회포를 풀었다.

지리산 3박4일 종주' 신기록 자부심

둘둘산우회 성삼재~대원사 산행기

우덕현

'낙남정맥 종주' 기록을 보유한 제22회 동기회 둘둘산우회가 지난 여름에는 '3박4일 지리산 종주'의 기록을 하나 더 세웠다.

3개 대피소 예약 위해 한 달 전부터 컴과 씨름

50대 중반의 16명은 지난 8월14일 부산을 출발, 17일 돌아올 때까지 '일사불란'의 극기에 성공해 보람을 만끽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는 한 달 전부터 노고단대피소를 비롯, 벽소령과 장터목대피소 등에 인터넷 예약을 시도하느라 소올 태웠다. 이들 대피소들은 인터넷으로만 예약을 받기 때문에 컴퓨터에 능한 아내와 아들, 딸은 물론 아들의 친구 애인까지 동원하는 등 전방위 전략을 폈던 것.

1일째 = 8월14일 오후 1시 부산진역 앞 광장. 일행 중 벽소령에서 만나기로 한 2명을 제외한 14명이 집결해 출발부터 '행운'을 예고했다.

낙조에 물든 신비의 노고단 술에 취하고 별꽃에 취하고

17:00 성삼재에 도착했고 2시간 후 노고단대피소 입실 완료. 낙조를 감상하며 소줏잔을 나눈다. 보석을 뿌려 놓은 듯한 별꽃이 지리산 밤하늘을 수놓은 가운데 술과 정취에 한껏 취한다.

2일째 = 15일 06:00 대피소 출발. 10분쯤 산행 끝에 노고단 코앞(정상은 통제로 오를 수 없음)을 지나고 임걸령~삼도봉~화개재(옛날 남원과 화개를 넘나들던 장꾼들의 애환 서린 곳)~토끼봉~명선봉을 차례로 밟는다. 말복날인데도 산 속은 가을날씨 같다. 간간이 야생화의 아름다운 자태를 렌즈에 담는다.

12:00 연하천대피소. 간단히 점심식사를 하고 2시간 거리의 벽소령으로 발길을 재촉한다. 입실완료시간(오후 4기)까지는 넉넉하다. 주위의 풍광을 심취하는데, 청초한 산꽃들의 이름을 몰라 안타깝다.

16:00 백소령대피소 도착. 의신쪽에서 올라온 하성일 부부가 먼저와 술과 안주를 준비하고 우릴 기다린다. 사람도 반갑지만 술과 안주가 얼마나 반갑든지….

140명 수용에 대피소에는 1,000여명이 우글거려 시장통 같다. 샘터와 화장실은 북새통이고 해가 지면서 기온이 급강하해 초겨울의 날씨라 800여명이 비박을 하느라 침낭에 잠복하고 있다. 마치 남부군의 패잔병 모습을 연상케 한다.

140명 수용 대피소에 1,000여명 몰려 북새통

3일째 = 07:30 산행 시작. 운무가 산허리를 휘감더니 곧내 빗줄기를 뿌린다. 벽소령~장터목 4시간30분 동안 강행(보통 5시간보다 30분 단축). 최고의 절경을 자랑한다는 이곳 풍광이 비와 운무에 숨어버려 실망이 이만저만 아니다.

칠선봉~영신봉 거쳐 12:00 세석대피소 도착. 비에 젖은 온몸을 뜨거운 라면 국물로 풀고 이내 촛대봉~연하봉을 넘는다.

15:00 장터목대피소에 닿는다. 그런데 입실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연세(?)가 많아 보이는 차출된 2명이 대피소 직원과 교섭을 벌였고, 가까스로 아늑한 제석실에 여장을 푼다.

4일째 = 06:30 장터목대피소를 향해 발품을 팔기 시작한다. 밤새 내린 비가 아직도 오락가락한다. 산허리를 감싼 운해는 장관의 극치. 저 멀리 반야봉이 운해 사이로 손짓한다. 10여분 지나니 제석봉 고사목군락이 한반도의 안녕을 지켜주는 솟대처럼 나타난다.

천왕봉 장엄미에 탄성만… 중봉~치발목 원시림 장관

07:30 금방 하늘이 열릴 것 같은 통천문에 닿는다. '하늘로 오르는 길'이라서 그런지 가파르다. 숨이 꽉 차기 10여분, 3대에 걸쳐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대망의 천왕봉(1915m)에 올라 호연지기를 편다(사진). 일출을 볼 수 없어 섭섭했지만 발아래로 펼쳐진 신비의 운해가 우리를 감동시킨다.

하산을 재촉한다. 대원사까지 7시간이나 걸려 마음이 무겁다. 3시간 걸려 중봉~서리봉~치발목대피소를 돌파한다. 이 코스는 원시림이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자랑하는 구간. 대피소에서 그립던 소주를 만나니 모두들 힘이 절로 솟는 기분이다.

장엄한 무재치기폭포의 얼음물 같은 물에 발을 잠시 담근다. 유평을 지나 대원사 주차장에 닿는다(16:00). 하성일 동문이 마련한 단합회에서 '5년 후 재도전'을 약속한다. "둘둘산우회 영원하리!"

안개 짙은 백양산에

삼공산악회, 제145차 산행

삼공산악회 제145차 산행대회가 지난 8월31일 백양산에서 열렸다. 문장호 회장을 비롯, 손보현 김병섭 김우삼 유창열 박웅석 정용하 동문 등 7명은 이날 오전 10시 어린이대공원 입구에서 모여 공원 측면을 타고 올라가 백양산을 등정했다.

안개가 심해 이 동네 터줏대감인 손보현 동문이 지형정찰을 다시 한 후 능선을 찾아냈고 이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일행은 백양산~불태령~불태고개~만남의 광장~성지곡수원지에서 건강을 다졌다.

兵船 만들 목재 기른 봉산

백양산

백양산은 부산의 등줄기인 금정산맥 주능선 위에 솟은 산(641.5m)으로 부산진구와 사상구 경계를 이룬다. 부산 도심의 하천인 동천과 우리나라 상수도의 시초가 되는 성지곡수원지의 발원지이기도 하다. 북으로 금정산, 남으로 엄광산에 이어 몰운대까지 이어진다. 백양산은 '밝은 산' 즉 '광명한 산'이라는 뜻이다. 좌수영지 병고조에 따르면, 백양산을 '운수산'으로 표기하고 운수산은 병고(兵庫)라 하여 수군의 병선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목재를 얻기 위해 일반인들의 출입을 금지시켰던 봉산이다.

적은 투자로 큰 효과 거두는 회보 광고 !

회보 광고로 홍보하면
사업번창과 역량결집 위한
'황금알'을 낳습니다.

각 동기회 · 직능회 · 국내외 지역회와
사업하는 용마들의 광고협찬은 알찬 회보를
만드는 활력소입니다. 성원 바랍니다.

초가을 계룡산 자락서 야유회

재경경팔회, 박동열 본부회장 등 특찬금

재경경팔회 가을야유회가 지난 9월 30일 국립공원 계룡산 자락의 동학사와 그 계곡 일원에서 이뤄졌다.

강성태 회장이 인솔한 이번 야유회에는 동문 16명과 부인 12명 등 모두 28명이 참가, 초가을의 정취를 만끽했다. 일행은 귀로에 유성관광호텔 사우나에서 온천욕을 즐겼다.

강 회장은 이날 야유회를 위해 특찬금을 쾌척한 박동열(본부회장·50만원)·지창수(30만원), 추경석 이창근 김영학 홍기성(각20만원)·조석제 이유환 동문(각10만원)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구만산 돼지고기파티 '신바람'

제18회 가을나들이… 3마리 깜쪽같이 사라져

제18회동기회의 산행 겸들인 가을나들이 행사가 지난 9월28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 구만산과 한천송덕비공원에서 열렸다.

김길제 회장이 '진두지휘' 한 이날 행사는 부인 27명을 포함해 모두 77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10시20분께 양지마을을 출발, 40분 만에 제1폭포에, 다시 50분 동안 헉헉거린 끝에 11시50분께 제2폭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포즈를 취하는 등 30여분 동안 쉬다가 하산, 오후 1시30분경 점심장소인 한천송덕비공원에 다시 모였다.

구만산 제2폭포 앞에서 성취감을 만끽하며 환하게 웃고 있는 '18번지 친구들'과 가족들.

한천 송덕비공원에서 돼지고기 파티를 즐기고 있는 용마가족들.

제1부 구만산(758m) 등정과 제2부 돼지고기파티로 엮어져 흥겨움 속에 초가을의 정취에 흠뻑 젖었다.

구만산은 지난해 한번 도전했던 터라 허약한(?) 10여명만 빼놓고 나머지 60여명은 이날 오

일행은 삶은 돼지고기에다 소주와 맥주 등으로 차려진 잔치상에 둘러앉아 허기를 채웠다. 방금 삶아낸 돼지고기의 맛은 일품이었는데 자그마치 3마리가 상에 올려졌다.

태풍복구 기원 역주 아시아新 수립

'영·호남 태풍복구 염원 마라톤에 싣고…'

62세의 용마마라토너가 태풍 '매미'로 쑥대밭이 된 영·호남 태풍피해 지역 820㎞ 구간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하는 '희망의 2005리 달리기'에 나서 절망에 빠진 피해민들에게 재기의 희망과 용기를 심어주었다.

특히 울트라 마라톤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는 쾌거를 올

울산 이영정 동문(15회) 6일走 820㎞ 달려

려 겹박수를 받았다.

화제의 주인공은 '영원한 일류를 추구'하는 울트라마라톤 6일주(6日走-만 6일〈144시간〉동안 달린 총거리를 재는 경기) 한국 신기록 보유자(710㎞)인 이영정 동문(15회·울산 남구문화원 사무국장).

이 동문은 지난 9월20일 오전 9시 울산을 출발, 26일 오전 9시 울산으로 돌아오기까

골인하고 있는 이영정 동문.

지 만 6일-144시간 동안 영·호남의 태풍피해 지역을 달리며 복구에 밤낮없이 고통을 참아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반드시 재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동문이 달린 코스는 울산~마산~진주~순천~강진~목포~광주~남원~대구~경산~영천~경주~울산. 이 구간에는 영·호남 지역 주요도시 마라톤 동호회원 50여명이 동반주자팀을 구성, 4~5명이 10~20㎞씩 나눠 함께 달려 '고독한 역주'를 달래주었다.

매년 1~2차례 이상 100㎞ 이상을 뛰는 울트라마라톤대회를 완주하는 철각(鐵脚)으로 이름을 떨치고 있는 이 동문은 매일 평균 20㎞ 가량을 달리며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최근 7년 동안 지구

영·호남 피해민들에 재기의 용기 듬뿍 심어

반바퀴가 넘는 2만4,124㎞를 달렸다.

이 동문은 이번 쾌거를 통해 이 분야 아시아 최고기록 보유자인 일본의 아키 이노우에의 809.5㎞의 기록을 깨뜨리고 아시아 신기록을 세웠다.

이 동문은 "2~3년 안에 그리스의 야니스 쿠로소의 세계기록 1,022㎞에도 도전장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계천을 떠나며〉 동문이 펴낸 새 책

이 응 선(27회) 지음

서울 청계천에서 20여년간 화공약품과 공장 자동화기기 납품업을 해온 이응선 동문(27회)이 최근 복원공사에 떠밀려 이곳을 떠나게 되면서 청계천 사람들의 애환을 담은 〈청계천을 떠나며(황금가지)〉를 펴내 화제다.

이 책은, 한 바퀴 돌면 로켓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단 부품들이 모여 있는 '납품업의 메카'인 청계천의 낮과 밤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공구와 전기부품 등 생산재를 취급하는 청계 1~4가의 풍경이 주 무대를 이룬다.

초라함과 희망이 혼재한 청계천의 물씬 거리는 인정, IMF한파에도 견뎌낸 모습, 결단이 빠르고 실천이 확실한 덕분으로 성공한 사례, 거래처 방문 때는 반드시 정장차림이지만 평소에는 노타이·점퍼·캐주얼화 차림에 지하철로 출퇴근하

청계천 20년간의 애환 '사장님'들의 실속전략 소개

는 동료 '사장님'들의 실속 덩어리인 매너, 거래를 통한 인간관계를 쌓기 위해 납품과정에서 건네주는 '오찌'(뒷돈거래)에 관한 이야기 등 읽을수록 재미가 쏠쏠하다.

이 같은 '오찌'는 물건을 팔기 위한 절차이자 사업수완일 뿐이라 것이 이곳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란다.

이 동문은 "밖에서 들여다보면 지저분하고 손님들도 없어 장사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연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곳도 수두룩하고 거래처도 대기업들이 많다"며 "청계천 사람들은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출신 지역을 따지지 않으며, 졸병으로 군대에 다녀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귀띔했다.

이 동문은 대학 졸업 후인 지난 1983년 친척 가게를 이어받아 화공약품을 납품하는 일을 시작했고 이후 산업용 자동차센서와 냉난방 설비 용수 처리장치 등을 납품해 왔다. 업체명 '구응물산(九應物産)'은 꽉 찬 숫자인 '9'에 이름 중 '응'자를 따 사업이 번창하라고 직접 작명했다.

"개천에 20여년간 몸 담아온 사람들의 증언을 남기고 싶었다"며 "30대와 40대를 불살랐던 청계천을 떠나야 한다니 왠지 허전하고 아쉽다"고 말했다. 뒤모습이 어딘지 모르게 쓸쓸해보였다.

어디서 무엇을

제 8 회

朴祉秉=지난 9월 심근경색증으로 수술 받고 경과가 좋아 조기 퇴원하여 자택에서 요양중

李鳳祥=뉴욕 거주. 9월 일시 귀국

錢光源=9월16일 지병으로 별세

李埈赫=10월3일 일산신도시 뉴코아백화점 웨딩홀에서 아들 상용군 결혼

제 10 회

김용규=본부동창회 전 사무국장. 11월23일 정오 12시 서울호텔 소피텔 앰버서더 2층 웨딩홀에서 딸 종애양 결혼. 부산 서구 서대신동3가 294-11 크로바빌라 D동702호. 051-255-0536

姜鎭平=본부부회장. 부광산업(주) 대표이사. 055-385-7630. 11월2일 서울 동작구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딸 은주양 결혼(자택 경남김해시 어방동 대유유토피아 아파트 104동 603호 055)335-1232

朴春石=부산 북구 화명1동 754 화명그린힐아파트 101동 1203호. 051-331-9339

羅夏淵=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1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106동 601호. 051-622-3860

曺相培=10월28일 지병으로 별세

정상수=(자택이사)경기 용인시 구성읍 은남리 495 구성2차 삼성래미안아파트 202동 140호. 전화번호 동일

崔允海=(자택이사)인천시 중구 운서동 2747-6 창보 밀레시티 1차 315동 104호. 032-751-3679

姜在煥=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1250 롯데아파트 101동 705호. 02-751-2298-8475

張宬俸=10월26일 COSMOART HALL 3층에서 딸 결혼

양진기=10월19일 청담동 프리마 호텔에서 딸 결혼

鄭承錫=매미태풍으로 피해. 위로와 격려의 전화 부탁드립니다. 055-641-5072

제 11 회

申大守=해운대지역동창회 회장. 11월1일 해운대 그랜드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장남 홍천군 결혼

제 12 회

洪永錫=미국해군조선소 수석연구원. 울산에서 조선학회 참석 후 동기회사무실 방문

張一坤=태국 거주. 동기회사무실 방문

千九星=동기회 총무. 10월9일 모친 별세

姜昌秀=10월16일 동기회사무실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인 솜씨인 도토리묵 파티

제 13 회

權五德=10월12일 부산호텔 2층에서 자녀 결혼

金永吉=(업종변경)해물나라 물꽁집. 051-462-7338. 동구 부산일보 옆

金 淸=10월19일 롯데호텔 2층에서 자녀 결혼

南永基=(자택이사)부산 사하구 괴정1동 5741 신동양아파트 1동 508호. 051-201-1925. 019-575-1920

文基燦=(개업)금뚜꺼비 식당. 부산 남구 대연4동 1204-61. 051-611-5103. 018-566-9796

文顯吉=(자택이사)인천 계양구 작전동 420 미도아파트 2동 104호. 032-544-8919

〈6면에 계속〉

제8회동기회

올해 정기총회 12월 8일 재경 경팔회 이사회서 확정

제8회재경동기회 2003년 정기총회가 오는 12월8일 서울 서초동 외교센타 12층 리더스클럽에서 부인 동반 행사로 열린다.

지난 10월23일 오후 1시 서울 청진동 홍진옥에서 이사회를 주재하고 정기총회 개최 계획안과 가을야유회 결산보고 등 주요의제를 통과시켰다.

재경산우회 왕성한 산행

산우회(회장 김영철)는 지난 10월 세 차례 산행을 실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우정의 꽃도 활짝 피웠다. 25일에는 관악산을, 18일에는 수락산을, 11일에는 도봉산을 각각 올랐다. 매번 산행 때는 김회장을 비롯, 10여명이 모였다.

한편 9월 산행에 나선 동문들은 도봉·수락·관악산 할 것 없이 지난번 태풍 '매미'의 횡포(?)로 길이 패이고 계곡엔 큰물이 휩쓸고 간 상처들로 마음이 아팠다. 이유환 동문은 "물의 시원(始源)인 산 거기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돌 한 덩이까지 모두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골프우승 윤태영·이정자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배주원)는 지난 11월6일 안성CC에서 제125회 월례회를 열었다. 한편 지난 10월 20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제124회 대회에서 남자부는 우승 윤태영(85타·-4), 준우승 김영길, 3등 손세일·니어리스트상 추경석, 행운상 전영배 동문이, 여자부는 우승 김석근(102타·이븐), 니어리스트상 이정자씨가 각각 차지했다.

바둑 10월 우승 이종수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지난 11월 1일 오후 1시30분 한일기원에서 열렸다. 한편 지난 10월 4일 오후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열린 10월 월례회는 우승 이종수·준우승 최대영 동문이 각각 차지했다. 이날 신현주 전영배 최대영 윤태영 손대근 이종수 강성태 이창근 김진석 동문이 참석했다.

제10회동기회

동수회 등 재경 친목회 풍성

경열회(재경회) 각 친목회의 10월 활동이 풍성하게 이뤄졌다.

강남회(회장 성 온)는 28일 정오 서초갈비촌에서, 여의도회(회장 최윤해)는 21일 정오 대청마루에서 각각 모여 축배를 들었다. 골프모임 경록회(회장 이정배)는 23일 정오 자유CC에서 회장배 대회를 열었고, 등산모임 사니조아(회장 이계창)는 19일과 4일 두 차례 각각 소요산과 도봉산에서 심신을 단련했다.

게·시·판

테니스모임 정우회(회장 박칠민)는 17일 정오 과천 관문테니스장에서, 바둑모임 동수회(회장 김영복)는 11일 오후 1시 서초기원에서 각각 기량을 겨뤘다.

안산회(회장 박칠민)는 14일 정오 안산 중앙역 다릿목 추어탕집에서, 강북회(회장 이효술)는 7일 정오 중앙극장 앞 평래옥에서 각각 소주잔을 나누며 회포를 풀었다.

제15회동기회

동기회관 개관 8주년 기념식

동기회관 개관 8주년 기념식이 지난 10월22일 오후 5시30분 부산 중구 부평동 골든 O/T 동기회관에서 한해수 운영위원장 주재로 열렸다(아래 사진).

기념식에서는 박찬호 동기회장과 조일랑 실장, 최근 6일주 820km를 달려 울트라 마라톤 아시아 신기록을 세운 이영정 동문 등 20여명이 참석, 자축했다. 특히 이 동문은 기념메달과 금일봉을 기탁했다.

동기회관은 한 위원장이 대형 원형 테이블과 고급의자 5개를 기증했고 박 회장이 창문 커튼을 모두 교체시켜 신선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새 회원 환영회도 겸해

일오기우회(회장 이승남)는 지난 10월25일 오후 2시 동기회관에서 강무송 동문 등 19명이 참석, 10월 정례대회를 열었고, 의약회(회장 김중광)는 같은 달 15일 오후 7시 부산 중구 중앙동 통운뷔페에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월례회를 열었다.

화친회(회장 임병철)와 이화회(회장 강부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7시 각각 죽마고우와 한정식 전문 송원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이날 화친회는 10명이, 이화회는 9명이 참석했는데, 김 훈 동문이 입회해 환영을 받았다.

박 동기회장, 삼팔회에 금일봉

가람회(회장 이정부)는 지난 10월 13일 오후 7시 온천장 일식집 소도에서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회를 개최했다. 또 삼팔회(회장 이승남)는 같은 달 10일 오후 7시 온천장 울진거북이횟집에서 정례회를 열었다. 이날 모임에는 박찬호 동기회장과 조일랑 총무, 김승일 동기회관운영위원 등이 참석, 축하했다. 특히 박 회장은 발전기금으로 금일봉을 전달해 큰 박수를 받았다.

산우회 제211차 산행대회

일오산우회(회장 김중광)는 지난 10월 19일 금정산에서 제211차 산행대회를 펼쳤다. 김명배 동문이 산행대장을 맡았는데 14명이 곱게 물들기 시작하는 단풍 속의 산경에 새로운 정취를 만끽했다.

제31회동기회

경부합동 등산대회

제31회재경동기회는 지난 8월 21일 오후 7시 서울 그양구이집에서 월례회를 열고 동기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장재민 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모두 22명이 참석, 초반부터 폭탄주를 돌리는 바람에 이내 시끌벅적거렸다. 회장은 유가족 장학금 전달에 대한 보고와 골프대회, 가을단합회, 경부합동 가을등산대회, 송년회 등을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회비를 낸 동문은 다음과 같다.

△최경도 200만원△김도선 100만원 △배영수 30만원 △은창용 안민수 각 20만원 △최정윤 송치근 오세웅 이준성 이건홍 하성임 각 10만원.

바로잡습니다

회보 342호 6면 '어디서 무엇을'의 제8회 동기회 地昌壽는 '池昌壽'이며, 7면 제13회동기회 金英植은 '김영석(초산)'이기에 각각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8면 '본부, 수재의연금 기탁' 제목의 기사 중 제31회동기회 손태영 회장은 '손영태' 회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선하동계곡은 피서산행 명당

홍 성 수

제31회 마이너산악회 천성산 등정기

추석을 코앞에 둔 지난 9월7일 오전 9시50분 내원사매표소 주차장. 제31회동기회 마이너산악회 8명이 천성산 들머리를 들어설 채비에 바쁘다.

밤낮 가리지 않고 회원들을 닥달하는 정 문 회장을 비롯해 일일 총무 안중수, 우리 회에서 최고로(잔,찬) 머리좋은 부영이, 이탈리아와 독일에서 100%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온 유럽지부장 수교와 부인, 경주에서 단번에 달려온 산행대장 영준이, 몸도 마음도 넓은 필자와 어부인 등은 각오를 다진다.

10:00 매표소 앞 신선교를 건너자 왼편으로 산령각이 나타난다. 산령각 옆길을 따라 발길을 재촉한다.

급경사를 맞아 거친 숨을 토해내다가 단숨에 179봉에 선다. 목을 축이고 다시 완만한 경사를 산행대장인 영준이의 보폭에 따라 한 줄로 올라간다. 바람 한 점 없는 후텁지근한 날씨라 땀에 흠뻑 젖는다. 오르막 능선 바위 너머로 황금꽃, 며느리밑씻개 등이 군락을 이루어 예쁘게 피어 있다.

390봉에 도착한다(11:10). 준비해온 포도 쵸코렛 커피 등으로 휴식을 즐긴다. 다시 발품을 푼다. 10여분 오르는데 갑자기 급격한 내리막이 나타나 힘겨워하다가 안부(사거리)에 도착한다.

산과 산 사이의 완전히 꺼진 안부에서 올려다보니 정상이 나무 사이로 까마득히 보인다. 서로를 격려하며 오르다가 산봉우리에 선다(12:00).

기념촬영 후 주위를 돌아보니 약간 걷힌 안개사이로 공룡능선이 보이고 아래로 성불암이 네모 반듯이 자리잡고 있다. 잠시 휴식 후 목표지인 740봉을 향한다.

길게 뻗은 능선을 타고 한참을 걷다 740봉 밑에 도착할 무렵 영준이가 고통스러워한다. 허벅지 근육이 좋지않다고 한다. 할 수 없이 산행대장을 바꾼다.

악전고투 끝에 740봉에 우뚝 선다(13:00). 먼저 온 일행은 자리를 깔고 점심준비를 끝내고 기다리고 있다. 수교가 웃으며 준비해온 와인을 내어놓는다. 70만원짜리 적포도주를 마시며 '740 레스토랑 산상오찬'에 만족한다.

14:00 하산길에 오른다. 다소 미끄러운 내리막길을 30여분 고전하다 집북재에 닿는다. 기념촬영을 하고 선하동 계곡으로 내려서려는데 순간 5% 부족한 중수, "나는 공룡능선 타고 넘어가께. 나중에 계곡 합수점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는가.

공룡능선파와 원안파간에 옥신각신. 결국 원안파가 이겼다. 중수는 공룡능선으로 간다며 발길을 옮긴다.

일행은 선하동계곡을 따라 내려간다. 한참을 내려오다 넓고 평평한 바위 옆 개울 물에 발을 식힌다. "바로 이 맛이야!"

산행 후 계곡 합수점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용마가족들.

한참 후 출발 5분 전을 알리던 회장이 "조금 있다 가자"를 연발하는 회원들의 뜻을 받아들여 "그래 좀더 쉬어라!" 한다.

깊은 계곡인지라 핸드폰이 터지지 않아 중수와는 여전히 불통이다. 전에 명명했던 '공룡배꼽폭포'를 지나 개울을 건넜다 건너왔다를 여러번 하다 노전암 입구에 도착한다(16:20).

드디어 합수점. "중수야!" 불러보았지만 기척이 없다. 걱정을 하며 바위 뒤쪽을 보니 벌겋게 달아오른 중수가 개울에 몸을 식히고 있다. 또 기념촬영이다.

내원사 주차장(17:10). 장장 7시간의 피로를 풀기 위해 절 앞 구멍가게에서 한잔씩 하고는 출발, 지하철 장전역 근처 두부전문점에 도착한다(19:00). 두부전골, 두부수육, 맥주로 회포를 푼다 권할 만한 집이다.

〈5면에 이어〉

제 13 회

朴安男=10월26일 사학연금회관에서 자녀 결혼

裵忠幸=(자택이사)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1-12 동원화인아파트 103동 310호. 051-949-7889. 011-848-7889

申敏徹=(자택이사)부산 남구 대연3동 대연비치아파트 105동 1107호. 011-593-5637

李太朗=(자택이사)부산 금정구 구서2동 176-24 두실5로 83호. 011-9570-6853

張爲秋=(자택이사)부산 사하구 하단1동 1176 가락타운 313동 2403호. 011-9518-5704

제 14 회

李鍾敏=부산공항관세사무소 대표. 051-469-3613. 051-973-1818. 11월22일 오후 1시 목화예식장 2층 성실에서 아들 영진군 결혼. (자택)부산 동래구 온천2동 럭키아파트 19동 502호. 051-554-0074

朴大勳=9월28일 벡스코예식부에서 3녀 결혼. 051-201-2294

尹相玉=10월13일 지병으로 별세. 051-753-8814

張元柱=10월20일 지병으로 별세. 052-293-3690

黃浚性=보민당약국 대표. 11월2일 벡스코에서 장남 결혼. 051-324-0051. 011-577-5923

孔七星=미국 약국 대표. 11월2일 벡스코예식부에서 장남 결혼. 055-384-7834 (자택)898-0984

姜敏濟=뉴국제탕 대표. 11월2일 그랜드호텔 예식부에서 3녀 결혼. 051-742-0701 (자택)051-702-5461

제 15 회

韓桃根=근화산업개발 이사 (사무실이전)부산 금정구 청룡동 87 극동빌딩 601호. 051-508-8014~5. 팩스 051-508-8016

趙南郁=(자택이사)부산 사하구 다대4지구 도개공아파트 119동 2502호. 051-264-8423. 016-9335-1095

金祥正=(자택이사)부산 수영구 민락동 108-1 대우 푸르지오아파트 108동 2203호. 051-761-2417

金洋一=(주소변경)경남 진주시 대곡면 가정리 992 성남사 법지스님. 055-742-0134

李先功=(자택이사)부산 기장군 기장읍 청강리 우신 레오빌 105동 1101호. 051-742-0166

孫 實=10월6일 모친 별세

崔三鎔=10월11일 지병으로 별세

趙英一=10월11일 호텔 농심 별관 허심청 2층 대청홀에서 장남 지훈군 결혼

姜武相=(자택전화변경)051-945-8067

姜永勳=P&F international Co., Ltd. 부산 중구 중앙동4가 76-13 CMK빌딩 4층. 051-462-4501. 팩스 051-462-5018

이요셉=기독동문 신우회 회장. 9월6일 리틀캠퍼스에서 동문 초청 나눔의 밤 행사 주재. 9월8일 전섭태 회계(25회)와 모교 경남고(교장 권명미)를 방문하여 소년가장 재학생을 위해 써달라며 장학금 60만원 전달

李 峻=9월27일 창원호텔 별관 웨딩홀에서 장남 규현군 결혼

〈7면에 계속〉

이 자리는 보고싶은 용마가족들이
근황을 전하며 만나는 우정의 광장입니다.

어디서 무엇을

국내외 거주하는 동문 여러분께서는
동기회나 본부동창회로 소식을 보내십시오.

〈6면에 이어〉

제 15 회

河永守=9월29일 연산동 동산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임직식을 갖고 정식 목사로 새 출발

제 18 회

李兢熙=문화방송 대표이사. 9월30일 중앙대가 수여하는 2003년도 제15회 중앙언론문화상 방송부문 수상자로 선정
金基箴=INS코리아 부사장 취임. 부산 중구 동광동 21가 삼호빌딩 703호. 051-242-8080. 011-847-9046
羅正憲=네일마트와 동영상VCD 제작 전문회사 대표. 051-743-4185. 018-575-8206. 홈페이지 moviemake.co.kr
金東善=8월30일 금강예식장 크리스탈홀에서 장남 승균군 결혼
金永秀=8월30일 서울 광림교회에서 장남 승욱군 결혼
金用大=9월20일 부산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장남 상우군 결혼
金鍾琴=9월21일 웨스틴 조선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장녀 결혼
金泰均=10월11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장녀 보경양 결혼
金正圭=10월12일 울산 옥동예식장에서 장남 진우군 결혼
姜德隆=11월2일 월내 한국전력 연수원에서 장녀 정아양 결혼
金鍾文=11월2일 목화예식장에서 장녀 유진양 결혼
韓聖根=7월7일 별세
徐溶兌=9월22일 부친 별세
曺正甲=10월12일 모친 별세

제 19 회

南泰鉉=10월12일 여수관광호텔에서 장남 결혼
李鍾明=10월19일 서울 로보텔 엠바서드에서 장남 결혼. 016-597-0548
成樂出=진영읍 단감농장. 011-561-9570
成煥震=녹산신호공단 (주)현대정공 회장. 011-591-3124
辛尙建=한국데이타시스템 대표이사. 051-631-4431
吳炅鍾=부산남부경찰서 서장. 051-623-3101
吳在浩=대일보세창고 대표이사. 051-415-3131
柳元尙=청용건설 대표이사. 051-501-6002
尹文英=용당2동 동장. 051-607-4818
尹敏根=경남화원 대표. 051-246-0804
尹永奎=우양냉장(주) 전무. 051-248-7621
李江鎔=이강용내과의원 원장. 온천장. 051-555-2901
李基柱=부산신용정보(주) 대표이사. 051-895-2451
李明煥=경남세차장 대표. 051-647-7460
李永斗=동주대학 기획사무처장. 051-200-3337
李炳九=이병구내과의원 원장. 용호동. 051-623-7092
李炳浩=(주)리호 대표이사. 051-265-9777
李富成=천수내과의원 원장. 신평동. 051-205-4877
李聖達=(주)대성컨테이너 대표이사. 051-783-2200
李承洪=부산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051-510-2312

제 20 회

崔長夏=최요한성형외과 원장. 10월11일 동래 농심호텔에서 딸 소론양 결혼. 051-816-3800
李銓哲=한국CMR(주) 회장. 10월1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들 일영군 결혼. 051-521-0166
任盛春=사동초등학교 교장. 10월25일 범일동 하모니웨딩타운에서 딸 수현양 결혼. 051-266-2260
黃明煥=(자택이사)부산 남구 용당동 한신문화타운 101동 103호. 011-551-3018
具暎男=삼호산업(주) 대표로 취임. 051-550-1110
文正潤=청조해운(주) 대표. (사무실이전)부산 동구 초량동 1204 성신빌딩 503호. 051-466-6360
金台英=MNS(주) 대표. (사무실이전)부산 중구 중앙동 삼성생명빌딩 6층. 051-462-9135

제 21 회

李鎭晳=9월1일 모친 별세. 011-844-5874
金南一=9월26일 모친 별세
趙학來=10월15일 부친 별세. 011-312-4441
姜榮徒=(자택이사)부산 동래구 온천2동 럭키아파트 15동 203호. 051-557-3305
李小乭=(개업)대광양곱창. 부산 중구 부평동. 051-248-0605
吳翌熙=(주)길평 종합설계감리 부사장. 051-510-4330. 011-9514-7900
崔元鍾=10월25일 모친 별세. 011-9748-5801
具永炤=경기 파주시 교하면 다율리 월드메르디앙아파트 202동 804호. 031-948-5211
具賢守=경기 안양시 동안구 갈산동 엄광아파트 309동 1902호. 031-477-7189
金貴經=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신흥주공아파트 11동 202호. 031-736-4311
金永秀=국민은행 기업금융지점장. 02-769-1040. 9월17일 부친 별세
金完一=(주)화인텍개발 대표. 02-2645-5270. 서울 중구 필동1가 18-2 충무로빌딩 2층
金宇均=김우균산부인과. 02-3444-1430. 9월6일 장녀 결혼
金鍾喆=경기 파주시 교하면 와동리 현대1차아파트 101동 1504호. 031-949-3266
金且根=경기 하남시 천현동 620-5 상가주택 302호. 031-792-6435
金昌秀=국가정보원 근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장미마을 803동 203호. 031-703-8726
金洪柱=7월22일 모친 별세
朴明煜=서울 용산구 한남동 현대 하이페리온 1동 901호. 02-795-7915
吳始雄=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성원5차 502동 1604호. 031-907-0172
尹善欽=서울 강서구 화곡동 1093 우장산 롯데아파트 305동 701호. 02-2065-6773
李英勳=로지트코퍼레이션(주), (주)영성, 마이크로텍(주), FE엔터테인먼트(주), 로지트FN(주) 회장
趙顯國=서울 서초구 서초1동 1647-1 롯데캐슬스파아파트 703호. 02-586-3489
崔龍七=(주)마이크로텍 대표이사. 031-902-0757
河東輝=경기 용인시 신봉동 LG5차아파트 506동 1803호. 031-264-0970
黃活雄=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3차아파트 1동 1305호. 02-571-4670

제 24 회

鄭驥春=부산 연제구 거제4동 676-108 (5/4). 051-504-2183. 10월25일 사학연금 부산회관에서 딸 지은양 결혼

제 27 회

金孝燮=10월26일 별세
孔民培=열린 우리당 참여인사. 전 창원시장
金修仁=스포츠조선 인터넷부장(부국장대우)으로 보직변경
白承二=부산시 바둑협회 전무이사. 9월 6일 낙원예식장 장남 창윤군 결혼
魏午基=일본 나고야대학 초빙교수로 1년간 파견. 공주대학교수
李敏富=한국교원대 교수. 10월26일 부친 별세

제 28 회

金用熙=롯데야구단 2군 감독으로 그라운드 복귀
張基南=인도네시아 거주. gnjang1120@yahoo.co.kr
文八岩=대한항공 B777 기장으로 근무
한영호=부산시청 사회복지과 근무. 051-888-2791. E-mail:yhhan@metro.busan.kr
吳正玩=해운대 경찰서 경무과장을 끝으로 공직사퇴. 한아름정보통신 남천점 개업. 051-621-1123
黃圭燦=호주 시드니 거주. (자택)61-2-9449-7217 (회사)61-2-9144-2655. E-mail:kcdatto@hanmail.net
裵善進=우리은행 기업영업지점장. 02-761-3594. E-mail:sjbae54@wooribank.com
朴成益=(주)이연정보통신 이사. 02-549-4946. E-mail:incheonbi@hanmail.net
趙廣濟=10월1일 부친 별세
姜芝燕=SK해운 삼성중공업 선주감독관실. 10월2일 모친 별세
崔匡海=삼성전자. 11월8일 부친 별세
禹健植=다빈식품 운영. 051-751-3651. 011-854-6612
裵明哲=조선일보. 11월4일 모친 별세 남성광 동기님 근황
南星光=KT동래영업국 시장관리3팀장. 부산 금정구 부곡1동 63-1. 051-580-3150. 016-833-3456. E-mail:namsung@kt.co.kr (자택)부산 금정구 구서2동 1027-1 우성아파트 15동 302호. 051-582-1177
신영진=초기. 10월 27일 심장마비로 별세

제 29 회

李漢哲=(개업)에스오 카써비스. 전포동 황령산레포츠공원옆 전포아파트부근. 051-806-8999. 011-880-2764
金基洙=부경대학교 무역학과. 051-620-6526. 016-9667-1314. (자택)부산 남구 용호1동 LG메트로시티 136동 401호. 051-622-1402
金正浩=기장고등학교. 051-722-0601. 017-873-4880. (자택)부산 연제구 연산1동 망미주공아파트 102동 1104호. 051-753-4881
姜英洙=(주)세계로여행사. 051-461-0100. 011-599-0643. (자택) 부산 중구 보수동2가 74-9 송파지오스빌딩 201호. 051-462-3131
朴光宇=(주)현대중공업 부산영업본부장. 051-442-2244. 011-9337-8045. (자택)부산 동래구 사직동 삼정그린코아아파트 103동 2101호. 051-507-9735
朴英奇=서면메디칼 안과의원. 051-668-8000. 016-895-5975. (자택)부산 부산진구 개금3동 동원화인아파트 104동 803호
李世勇=부산의료원 산부인과. 051-507-3000. 011-848-1249. (자택)부산 금정구 구서2동 1011 선경아파트 303동 801호. 051-934-0210
李憲律=부산일보 논설위원. 051-461-4031. 017-591-3531. (자택)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09동 2504호. 051-612-3531
趙大濟=수산업. 011-693-4435. (자택)부산 금정구 구서2동 165 신동아아파트 101동 1406호. 051-514-3873
許景道=모토로라전문점. 051-635-0166. 011-580-8000. (자택) 부산 기장군 기장읍 내리 628. 051-722-7857
黃孟均=부산자모병원. 051-760-0552. 011-878-0430. (자택)부산 남구 용호동 LG메트로시티 105동 702호. 051-621-3379
宋哲浩=성창기업(주) 051-260-3411. 018-207-1338. (자택)부산 남구 용호동 엘지메트로시티 142동 1802호
李聖俊=(개원)연세큐피부과. 수원시 인계동 1034-4 앤더슨크리닉B/D 6층. 031-2345-790
朴成宰=(개업)향미원. 중앙동 중부경찰서 앞 육교 옆. 051-465-2022

제 30 회

孫丞洛=9월22일 부친 별세. 011-550-0570
李相守=김해 현대 모비스. 10월13일 부친 별세. 016-307-2781
鄭採和=한라건설. 10월14일 모친 별세
許 準=대한주택공사 부산지사. 10월22일 부친 별세. 017-551-3958
池振弘=10월22일 모친 별세. 017-575-4750
金京燮=동래세무서 세원관리 2과. 051-860-2422. 016-567-3047
金載哲=부산MBC 정경부장. 051-760-1323
李戊煥=(개업)한일유통. 가락3단지 부근. 051-203-2706. 011-570-7713. 홈페이지 http://한일유통.com
李仁吉=동의의료원 종합검진센터 소장 겸임. 051-850-8755. 011-9317-8145
崔仁植=동양종합금융. 011-146-5570. 10월31일 부친 별세
柳光相=(주)한진해운. 018-331-8959. 10월29일 부친 별세
金玄泰=10월 21-10월 24일 벡스코 Hall 3에서 국제조선 기자재 전시. 011-591-3212
金世一=(확장개업)1층 한의원, 2층 물리치료실. 051-315-6969. 018-224-1044

제 31 회

김옥운=(개업)다르소. 한지공예, 다기, 차 등 전시 및 판매. 해운대신시가지 지하철 장산역 부근 화인클리닉 1층.

35년 전인 1958년 봄 제18회의 1학년4반생들이 오륜대로 소풍을 갔을 때 찍은 기념사진(위)과 제10회가 3학년일 때 편집됐던 <경고학보> 통권 제9호 표지(아래 오른쪽), 1967년 황금사자기 우승메달 · 1968년 일본 원정 고교선발팀이 유니폼에 달았던 태극 마크와 선수 명찰(아래 왼쪽).

"꿈에도 못 잊을 그리운 학창시절… 아, 옛날이여!"

모교60년사 희귀 자료 계속 접수

'꿈에도 못 잊을 그리운 학창시절… 아, 옛날이여!'

용마가족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 모교는 추억을 퍼올리는 샘물. 구덕산 기슭의 이 샘물은 인재를 배양한 자양분으로, 오늘도 용마가족들의 가슴마다 면면이 흐르고 있다.

모교60년사편찬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학창시절의 각종 자료들은 이 같은 의미를 웅변하고 있다.

<경고학보> 통권 제9호

이번 회보 제343호에는 세 가지 귀중한 자료를 소개한다. 먼저 〈경고학보〉 통권 제9호 수학여행 특집호. 이 자료는 김선동 동문(10회 · 부산시교육위원)이 제공한 것으로, 너무 오래 돼 종이가 누렇게 변색돼 있다. 표지는 시 '6월송(六月頌)'에 농부의 논갈이(최병국 촬영) 장면이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학보는 제10회 동문들이 3학년일 때 편집된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은 추월영 교장의 권두언 '두 가지 사는 길'을 비롯, 학도호국단 조직표, 운영위원회 정 · 부위원장 선거보고기 및 당선자 소감, 응원가 가사 모집 공모, 수학여행기, 차창에서 개최한 시조 백일장 작품(3학년 이원우 등) 등이 실려 있다.

오륜대 봄소풍 기념사진

제18회 동문들이 경남중 1학년 재학시절인 1958년 봄 오륜대에 소풍을 갔을 때 사진. 35년 전의 추억을 담은 이 사진은 1학년4반 생들과 담임 이성욱 선생님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교야구 대표팀 일본원정

1967년 제21회 황금사자기 전국고교야구대회(동아일보사 주최)에서 모교가 패권을 쟁취했을 때 받은 우승메달과, 1968년 8월14~30일 부산선발고교야구대표팀이 일본원정시 선수들이 유니폼에 달았던 태극 마크, 선수 명찰 등. 이 자료는 당시 모교 야구 선수로 선발됐던 황성동 동문(24회)이 제공했다.

원정 도중 오사카의 고시엔구장에서 열린 전국고교야구대회를 관전한 우리 대표팀은 임원 4명(단장 박경원 당시 경남고 교장 · 감독 어우홍 경남고 감독 · 부장 이길상 경남고 야구부장 · 섭외 정수택)과 선수 16명으로 구성되었다.

선수들 중 8명은 경남고 선수(김영목 정기태 권칠현 전무수-이상 3학년 · 오기봉 허구연 황성동-이상 2학년 · 박순철-1학년)였고, 부산고 4명 · 부산상 2명 · 경남상 2명이었다. 원정팀의 전적은 8전4승2무2패.

제48회 출범 "신고합니다"

용마기상 드높은 회기 흔들며 역량결집 다짐

초대회장 박주용 선출

제48회동기회가 지난 9월27일 오후 7시 부산역 앞 새마당예식장(제44회 회장 임정훈 동문 운영) 2층 특별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본부동창회에 공식입회를 선언했다.

박주용 초대회장(유신산업 해외영업팀장 · 사진)이 주재한 이날 출범식은 비록 30여 명이 참석, 조촐한 분위기였으나 앞으로 동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조직활성화운동에 하나같이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사회 천봉기 총무).

이날 행사는 기념식에 앞서 회칙을 통과시켰고 임원을 선출했다.

창립총회는 국민의례에 이어 교가제창, 내빈 · 참석 동문 · 명예동문으로 초대된 박정애씨(최재영 동문 부인) 등 소개, 동기회기 및 격려금 전달, 동기회장 인사, 본부동창회장 격려사, 기념사진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박주용 동기회장은 인사말에서 "동문과 가족들이 적극 참여하는 동기회로 만들어 동창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동창회 새내기들은 자축연을 통해 오는 10월5일 열리는 동창회 기별야구대회 입장식에 참석하는 것을 비롯, 경기에도 출전해 저력을 과시하고 동창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헌신하기로 다짐했다.

창립총회를 통해 본부동창회 기치 아래 동참을 선언한 제48회 동문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가운데줄 맨 오른쪽은 김형석 본부 사무국장 · 그 뒤쪽은 김병수 총무부장).

용마棋士들 우먼파워에 수모(?)

'위풍당당'하다던 용마기사들이 부산여성기우회의 우먼파워 앞에서 주눅이 든 채 수모(?)를 당했다.

제28회동기회 이팔기우회는 지난 10월19일 이관선바둑대회교실(아마 5단)에서 열린 부산여성기우회 기사 초청 교류전에서 어처구니없이 2-1로 석패, '납작코'가 됐다.

이팔기우회, 여성기우회 교류전서 2-1 석패

이원철 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국에서 이팔기우회는 갑 · 병조에서 모두 지고 겨우 을조(3~5급)에서만 우건식 · 이승준 동문이 각각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이 회장은 "예사로 생각했다가 큰코 다친 꼴이 됐다"며 "바둑에서도 양성평등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교류전은 제29회 후배들과 치를 예정이다.

클릭!! 클릭!!

본부동창회 홈페이지는
용마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동창사회의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www.kyungnam.or.kr

문의사항은 동창회 사무국(051-245-7551~3)으로 연락하십시오.

(주)부산항공여행사 · 부산골프여행사

600-011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1가 23-1
전화 : (051)246-0051
FAX : (051)246-8948
휴대폰 : 017-558-8850
e-mail:pusskp@hanafos.com

취급상품 : 국내외 항공권 · 골프 · 골프장 회원권 매매
신혼여행 · 배낭여행 · 각종 해외 세미나 · 연수여행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사 장 예종억
부사장 김성희 (19회)
(전 일본항공 이사로 33년 간 재직함)